Check for updates

J East Asian Soc Diet Life
36(5): 294~302 (2026)
http://dx.doi.org/10.17495/easdl.2026.10.36.5.294

로컬 먹거리기반 창업교육 요구도 및 프로그램 개발

김 옥 선†

장안대학교 푸드케어과 부교수

Needs Assessment and Program Development for Entrepreneurship Education Based on Local Food Resources

Ok-Sun Kim†

Associate Professor, Dept. of Food and Silver Care, Jangan University, Hwaseong 18331, Republic of Korea

ABSTRACT

This study assessed educational needs among adult learners majoring in food-related fields to provide a basis for developing an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 based on local food resources. Survey participation was requested from 100 adults aged 25 years or older living in Seoul and southern Gyeonggi Province, and 87 valid responses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samples *t*-tests, one-way ANOVA,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were conducted. Participants showed high awareness that local food processing education could contribute to regional economic revitalization (4.18±0.77) and expressed a relatively high intention to participate in the program (3.93±0.97). Perceptions of expanding the use of local agricultural products through food-processing education differed significantly by age group (p=0.042). FFive competency factors were identified: Startup branding, processing technology and safety management, product development, understanding of regional resources, and startup fundamentals. These factors explained 82.829% of the total variance, with Cronbach's α values ranging from 0.883 to 0.926. Participants preferred education combining theory and practice (58.6%) and short-term courses lasting two to five weeks (42.5%). These findings provide a basis for developing a practice-oriented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 incorporating local resources, product development, field experience, branding, marketing, and mentoring.

Key words: local food resources, entrepreneurship education, needs assessment, adult learners, program development

서 론

로컬 먹거리(local food)는 일정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식재료를 지역 내에서 가공·유통·소비하는 체계로, 생산자와 소비자 간 신뢰 형성, 지역 정체성 강화 및 경제적 가치의 지역 내 순환을 포함한다. 단거리 식품공급망(short food supply chains)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강화하고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촌과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다(Marsden T 등 2000; Renting H 등 2003). 또한 로컬 먹거리 체계는 경제적·사회적·환경적 가치를 함께 창출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식품체계의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Galli F & Brunori G 2013).

국내에서도 로컬 먹거리는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소비자 신뢰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확대되어 왔다. Kim JN & Koo HG(2020)은 로컬푸드 인증제에 대한 소비자, 생산자 및 매장 관계자의 인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반영한 인증기준과 운영체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로컬창업은 지역이 보유한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활동으로, 지역 농·임·수산물의 생산·가공·판매는 대표적인 로컬창업 유형에 해당한다(Cho JH 등 2024). 국내 로컬창업 연구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 가치 창출 및 지역 문화와 정체성의 활용이 주요 연구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Kim GW & Kim CW 2025).

로컬 먹거리 기반 창업은 지역농산물의 단순 판매와 달리 원료의 계절성과 품질 특성, 전처리와 가공기술, 식품위생 및 안전관리, 표시기준과 인허가, 제품개발, 원가관리, 브랜딩 및 판로 개척에 관한 복합적인 역량을 요구한다. 특히 식품 분야 창업은 소비자의 안전과 직접 관련되므로 사업계획 수립뿐 아니라 식품가공 공정과 위생관리 및 관련 법규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따라서 일반적인 창업이론이나 사업계획서 작성 중심의 교육만으로는 로컬 먹거리 기반 식품창업에 필요한 실무역량을 충분히 함양하기 어렵다.

† **Corresponding author :** Ok-Sun Kim, Tel: +82-31-299-3680, Fax: +82-31-299-3609, E-mail: okboog@jangan.ac.kr

창업교육은 창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뿐 아니라 창업동기, 기업가정신 및 창업역량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Lee WH(2023)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현장 실무 중심의 로컬 창업교육이 교육 참여자의 창업동기, 창업역량 및 기업가정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창업교육 프로그램은 교육목표와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수방법 및 성과지표가 서로 일치하도록 체계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Mwasalwiba ES 2010). 또한 창업교육 및 훈련의 효과를 메타분석한 Martin BC 등(2013)은 창업교육이 창업 관련 지식과 기술 등의 인적자본 형성 및 창업성과와 유의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로컬 먹거리 기반 창업교육도 단순한 창업 의향의 향상에 그치지 않고, 지역자원의 활용과 제품개발 및 사업화에 필요한 구체적인 역량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창업교육과 멘토링을 강화하고 대학, 지역기관 및 창업지원조직 간 연계성을 확보해야 한다(Lee CG & Seo YW 2018). 이러한 결과는 로컬창업교육이 일반적인 이론 전달보다 지역의 자원과 산업적 특성 및 학습자의 실제 요구를 반영하여 설계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로컬 먹거리 기반 창업교육의 대상에는 청년뿐 아니라 재취업, 전직, 귀농·귀촌 및 지역 정착형 창업을 준비하는 중·장년 성인학습자가 포함된다. 성인학습자는 축적된 경험을 학습자원으로 활용하고 실제 문제와 직접 연결된 교육에 높은 학습동기를 보이므로,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경험과 요구를 반영한 문제해결 중심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Knowles MS 1980). 경험학습이론에서도 구체적인 경험, 성찰, 개념화 및 실제 적용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질 때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Kolb DA 1984). 또한 불확실성이 높은 창업 과정에서는 학습자가 보유한 자원과 관계를 활용하여 기회를 탐색하고 실행하면서 사업모델을 구체화하는 접근이 중요하다(Sarasvathy SD 2001). 따라서 로컬 먹거리 기반 창업교육은 지역자원 조사, 식품가공 실습, 시제품 제작, 소비자 평가, 현장체험 및 전문가 멘토링이 연계된 경험·실행 중심의 교육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로컬푸드 인증과 유통 활성화, 로컬창업의 유형과 창업생태계 및 창업교육의 효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로컬 먹거리와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식품가공 창업에 초점을 두어 성인학습자의 교육 요구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구체적인 교육과정으로 연계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5세 이상 식품 관련 전공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로컬 먹거리 기반 창업교육에 대한 인식, 참여 의향, 교육 요구 역량 및 운영 방식에 대한 선호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교육 요구도 문항의 요인구조를 바탕으로 핵심역량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과 지역 연계형 식품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 남부 지역에 거주하며 대학에 재학 중인 25세 이상 식품 관련 전공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25년 12월 13일부터 2026년 1월 2일까지였으며, 자기기입식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네이버 폼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대상자에게 연구 목적과 설문 내용의 익명성 및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총 100명에게 설문 참여를 요청하였으며, 이 중 분석에 적합한 유효응답 87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2. 설문지 구성

본 연구의 설문지는 로컬 먹거리, 지역농산물 활용, 지역 창업생태계 및 창업교육에 관한 선행연구(Galli F & Brunori G 2013; Lee CG & Seo YW 2018; Kim JN & Koo HG 2020; Lee WH 2023)를 참고하여 연구 목적에 맞게 구성하였다. 초안을 작성한 후 식품영양, 식품조리, 로컬 먹거리 및 창업교육 분야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문항의 내용과 표현을 수정·보완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설문 항목은 5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영역은 로컬 먹거리 이용 현황으로 구매 장소, 주요 구매 상품, 구매 시간대 및 1회 구매금액을 조사하였다. 두 번째 영역은 로컬 먹거리 기반 창업교육에 대한 이해·인식 5문항과 창업교육 요구 역량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해·인식 문항은 로컬 먹거리의 개념과 중요성, 가공교육을 통한 지역농산물 활용범위 확대, 식품가공 창업교육의 필요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및 창업 준비에 대한 실질적 도움을 포함하였다. 창업교육 요구 역량 20문항은 제품 마케팅·홍보, 인허가·법규, 판매전략, 로컬 브랜딩·스토리텔링, 사업계획서·원가관리, 식품위생·HACCP, 포장·유통기한·표시기준, 식품가공기술, 반가공·간편식 개발, 신제품 개발, 레시피 배합, 시제품 제작·품질관리, 관능검사, 정책 연계, 공급망 구축, 기능성 제품 개발, 지속가능성, 자원 특성 이해, 협업모델 및 전처리 중요성으로 구성하였다. 이들 문항의 요인구조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검토하였다.

세 번째 영역은 교육 방식 및 운영 선호도로 선호 교육 형태, 교육기간, 교육 시간대 및 교육정보 획득 경로를 조사하였다. 네 번째 영역은 창업교육프로그램 참여 의향 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다섯 번째 영역은 성별, 연령, 거주지역, 직업, 창업교육 경험 및 창업 경험에 관한 일반적 특성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로컬 먹거리 기반 창업교육에 대한 이해·인식, 교육 요구 역량 및 교육 참여 의향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화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문항에 대한 인식이나 교육 요구 또는 참여의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통계처리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30.0 프로그램(IBM Corp.,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로컬 먹거리 이용 현황, 교육 운영 선호도는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복수응답 문항은 다중응답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로컬 먹거리 기반 창업교육에 대한 이해·인식, 참여 의향 문항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성별과 거주지역에 따른 창업교육에 대한 이해·인식 및 참여 의향의 차이는 독립표본 *t*-test로 분석하였다. 연령군에 따른 차이는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경우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로컬 먹거리 기반 창업교육 요구 역량 20문항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의 적합성은 Kaiser-Meyer-Olkin(KMO) 표본적합도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으로 확인하였다. 요인 추출에는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적용하였고, Varimax 직교회전을 실시하였다. 요인 수는 문항의 이론적 구성과 해석 가능성을 고려하여 5개로 지정하였으며, 요인적재량 0.50 이상을 기준으로 문항을 분류하였다. 각 요인의 내적 일관성은 Cronbach's α 계수로 검증하였다. 모든 통계적 유의성은 $p<0.05$ 수준에서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조사대상자 87명 중 여성은 70명(80.5%), 남성은 17명(19.5%)이었다. 연령은 25~35세와 36~45세가 각각 27명(31.0%)으로 가장 많았고, 46~55세 21명(24.1%), 56세 이상 12명(13.8%) 순이었다. 거주지역은 경기 남부 49명(56.3%), 서울 38명(43.7%)이었다. 직업은 취업자 42명(48.3%), 학생 18명(20.7%), 농업인 12명(13.8%), 예비창업자 15명(17.2%) 순이었다. 창업교육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21명(24.1%), 없는 대상자는 66명(75.9%)이었으며, 창업 경험도 있음 21명(24.1%), 없음 66명(75.9%)으로 동일한 분포를 보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Category		n (%)
Sex	Women	70 (80.5)
	Men	17 (19.5)
Age	25~35	27 (31.0)
	36~45	27 (31.0)
	46~55	21 (24.1)
	≥56	12 (13.8)
Residence	Seoul	38 (43.7)
	Southern Gyeonggi	49 (56.3)
Occupation	Student	18 (20.7)
	Employed	42 (48.3)
	Farmer	12 (13.8)
	Prospective entrepreneur	15 (17.2)
Entrepreneurship education experience	Yes	21 (24.1)
	No	66 (75.9)
Startup experience	Yes	21 (24.1)
	No	66 (75.9)
Total		87 (100.0)

위의 결과에서 조사대상자는 여성과 취업자의 비율이 높았고, 창업교육 및 창업 경험이 없는 응답자가 각각 75.9%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이후의 창업교육 인식, 참여 의향 및 운영방식 선호 결과는 이러한 표본 특성을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2. 로컬 먹거리 이용 현황

조사대상자의 로컬 먹거리 이용 현황은 Table 2와 같다. 구매 장소는 집 근처 소매점 또는 식료품점과 농협 하나로마트가 각각 21명(24.1%)으로 가장 많았고, 대형 할인매장 및 백화점 14명(16.1%), 로컬푸드 직매장 11명(12.6%), 인터넷·홈쇼핑 10명(11.5%) 순이었다. 구매 품목은 신선채소류 30명(34.5%), 일일식품 24명(27.6%), 제철과일류 17명(19.5%), 곡류 10명(11.5%) 순이었다. 구매 시간대는 주말 29명(33.3%), 평일 오후 27명(31.0%), 평일 저녁 21명(24.1%), 평일 오전 10명(11.5%) 순이었다. 1회 구매금액은 1만 원 이상~3만 원 미만 33명(37.9%), 3만 원 이상~5만 원 미만 28명(32.2%), 5만 원 이상 22명(25.3%), 1만 원 미만 4명(4.6%) 순이었다.

구매 장소가 집 근처 소매점 또는 식료품점과 농협 하나로마트에 집중되고, 구매 품목에서는 신선채소류와 일일식품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본 조사대상자의 로컬 먹

Table 2. Local food purchasing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Category	n (%)
Purchase location	Neighborhood retail store or grocery store	21 (24.1)
	Large discount store or department store	14 (16.1)
	Local food direct-sales store	11 (12.6)
	Traditional market	3 (3.4)
	Organic specialty store	5 (5.7)
	Nonghyup Hanaro Mart	21 (24.1)
	Internet or home shopping	10 (11.5)
	Farmers' direct market	1 (1.1)
	Other	1 (1.1)
Purchased product	Grains	10 (11.5)
	Daily food products	24 (27.6)
	Seasonings and traditional fermented foods	1 (1.1)
	Seasonal fruits	17 (19.5)
	Fresh vegetables	30 (34.5)
	Processed foods	5 (5.7)
Purchase time	Weekday morning	10 (11.5)
	Weekday afternoon	27 (31.0)
	Weekday evening	21 (24.1)
	Weekend	29 (33.3)
Amount per purchase (Unit: 1,000 KRW)	<10	4 (4.6)
	10~<30	33 (37.9)
	30~<50	28 (32.2)
	≥50	22 (25.3)
Total		87 (100.0)

거리 구매가 생활권 내 유통채널과 신선식품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단거리 식품공급망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물리적 거리뿐 아니라 생산지와 품질에 관한 정보의 전달을 통해 관계적 거리를 줄이는 체계라는 선행연구(Marsden T 등 2000; Renting H 등 2003)와 관련하여, 로컬 먹거리의 유통과 소비를 이해할 때 일상적인 구매채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1회 구매금액은 1만 원 이상~3만 원 미만과 3만 원 이상~5만 원 미만이 합계 70.1%였고, 구매 시간대는 주말과 평일 오후가 합계 64.3%였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대상자의 구매금액과 구매 시간대가 특정 구간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음을 나타내며, 관련 교육에서 판매채널과 소비자 구매행동을 다룰 때 위와 같은 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3. 로컬 먹거리 기반 창업교육에 대한 인식과 이해

로컬 먹거리 기반 창업교육에 대한 인식과 이해 수준은 Table 3과 같다. 전체 평균은 '지역농산물 활용 가공제품 개발교육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가 4.18±0.77점으로 가장 높았다. '로컬 먹거리 기반 식품가공 창업교육이 필요하다'는 4.10±0.72점이었고, '지역농산물은 가공교육을 통해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4.08±0.77점, '식품가공교육은 창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4.08±0.92점이었다. '로컬 먹거리의 개념과 중요성을 알고 있다'는 3.79±0.97점으로 다섯 문항 중 가장 낮았다.

조사결과에서 창업교육의 필요성, 지역경제 기여 및 창업 준비 도움에 관한 문항은 모두 4.00점 이상이었던 반면, 로컬 먹거리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조사대상자가 로컬 먹거리 기반 창업교육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비교적 높게 평가하였으나, 로컬 먹거리 자체에 대한 이해 수준은 다른 인식 문항보다 낮았음을 의미한다. 로컬푸드 관련 이해관계자 간 인식 차이를 줄이기 위해 인증기준과 운영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Kim JN & Koo HG(2020)의 연구를 고려할 때, 교육내용에는 로컬 먹거리의 개념과 중요성에 관한 기초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성별과 거주지역에 따른 다섯 문항의 차이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연령에 따라서는 '지역농산물은 가공교육을 통해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문항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42). 사후검정 결과 46~55세 집단은 4.38±0.50점으로 25~35세 집단의 3.78±0.75점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36~45세 집단(4.07±0.92점)과 56세 이상 집단(4.25±0.62점)은 두 집단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4. 창업교육프로그램 참여 의향

로컬 먹거리 기반 창업교육프로그램 참여 의향은 Table 4와 같다. 전체 평균은 3.93±0.97점이었다. 성별에서는 남성(4.00±0.94점), 연령에서는 46~55세(4.05±0.81점), 거주지역에서는 서울(4.08±0.78점)의 참여 의향이 가장 높았다.

전체 참여 의향 평균이 3.93점으로 나타난 것은 조사대상자가 프로그램 참여에 대체로 긍정적으로 응답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성별, 연령 및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위의 결과만으로 특정 집단의 참여 의향이 더 높다고 해석할 수 없다.

Table 3. Awareness and understanding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based on local food resources

Category		n	Awareness and understanding				
			Concept and importance	Utilization expansion	Need for entrepreneurship education	Contribution to regional economy	Practical support for startup preparation
Sex	Women	70	3.84±0.85[1)]	4.09±0.74	4.11±0.65	4.23±0.71	4.13±0.80
	Men	17	3.59±1.37	4.06±0.90	4.06±0.97	4.00±1.00	3.88±1.32
t-value (*p*-value)			0.732 (0.473)	0.129 (0.898)	0.285 (0.776)	1.098 (0.275)	0.992 (0.324)
Age	25~35	27	3.56±0.80	3.78±0.75[a2)]	3.81±0.68	3.93±0.68	3.89±0.75
	36~45	27	3.70±1.27	4.07±0.92[ab]	4.19±0.88	4.19±0.96	4.00±1.14
	46~55	21	4.10±0.83	4.38±0.50[b]	4.33±0.48	4.52±0.60	4.43±0.60
	≥56	12	4.00±0.60	4.25±0.62[ab]	4.17±0.58	4.17±0.58	4.08±1.08
F-value (*p*-value)			1.516 (0.216)	2.854* (0.042)	2.452 (0.069)	2.497 (0.065)	1.494 (0.222)
Residence	Seoul	38	3.76±0.79	4.05±0.66	4.05±0.57	4.24±0.63	4.08±0.78
	Southern Gyeonggi	49	3.82±1.09	4.10±0.85	4.14±0.82	4.14±0.87	4.08±1.02
t-value (*p*-value)			−0.253 (0.801)	−0.297 (0.767)	−0.581 (0.563)	0.562 (0.576)	−0.013 (0.989)
Total		87	3.79±0.97	4.08±0.77	4.10±0.72	4.18±0.77	4.08±0.92

[1)]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using a 5-point Likert scale (1=strongly disagree, 5=strongly agree).
[2)]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 b]) with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the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 $p<0.05$.

Table 4. Intention to participate in an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 based on local food resources

Category		Intention to participate in the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	
		n	Mean±S.D.
Sex	Women	70	3.91±0.99[1)]
	Men	17	4.00±0.94
t-value (*p*-value)			−0.324 (0.747)
Age	25~35	27	3.96±1.02
	36~45	27	3.93±1.17
	46~55	21	4.05±0.81
	≥56	12	3.67±0.65
F-value (*p*-value)			0.396 (0.756)
Residence	Seoul	38	4.08±0.78
	Southern Gyeonggi	49	3.82±1.09
t-value (*p*-value)			1.251 (0.214)
Total		87	3.93±0.97

[1)]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using a 5-point Likert scale (1=strongly disagree, 5=strongly agree).

참여 의향은 실제 참여 또는 창업 실행과 동일한 지표가 아니다. 창업교육 연구에서 주관적인 단기성과뿐 아니라 구체적인 학습성과와 실제 행동으로의 전환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Nabi G 등(2017)의 지적을 고려하면, 본 연구의 참여 의향 결과는 프로그램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5. 창업교육프로그램의 핵심역량

창업교육프로그램 핵심역량 20문항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KMO 표본적합도는 0.908이었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은 x^2=1,788.225(df=190, p<0.001)로 나타났다. 다섯 요인의 고유값은 창업 브랜딩 역량 4.280, 가공기술 및 안전관리 역량 3.573, 제품개발 역량 3.238, 지역자원 이해 역량 2.778, 창업기초 역량 2.697이었다. 요인별 설명분산은 각각 21.402%, 17.865%, 16.188%, 13.891% 및 13.484%였으며, 누적 설명분산은 82.829%였다.

창업 브랜딩 역량은 제품 마케팅 · 홍보, 인허가 · 법규, 판매전략, 로컬 브랜딩 · 스토리텔링 및 사업계획서 · 원가관리의 5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요인적재량은 0.628~0.895였다. 가공기술 및 안전관리 역량은 식품위생 · HACCP, 포장 · 유통기한 · 표시기준, 식품가공기술 및 반가공 · 간편식 개발의 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요인적재량은 0.688~0.826이었다. 제품개발 역량은 신제품 개발, 레시피 배합, 시제품 제작 · 품질관리 및 관능검사의 4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요인적재량은 0.556~0.800이었다. 지역자원 이해 역량은 정책 연계, 공급망 구축 및 기능성 제품 개발의 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요

Table 5.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of the competencies required for the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

Measurement items	Eigen value	Factor loading	Communality	Cronbach's α
Startup branding competency	4.280			
Product marketing and promotion		0.895	0.931	
Licensing and regulations		0.844	0.845	
Sales strategy		0.762	0.821	0.926
Local branding and storytelling		0.748	0.761	
Business planning and cost management		0.628	0.699	
% of variance			21.402	
Processing technology and safety management competency	3.573			
Food hygiene and HACCP		0.826	0.842	
Packaging, shelf life, and labeling standards		0.760	0.822	0.910
Food processing technology		0.711	0.847	
Semi-processed and convenience food development		0.688	0.858	
% of variance			17.865	
Product development competency	3.238			
New product development		0.800	0.880	
Recipe formulation		0.767	0.892	0.922
Prototype production and quality control		0.756	0.837	
Sensory evaluation		0.556	0.824	
% of variance			16.188	
Understanding of regional resources	2.778			
Policy linkage		0.715	0.821	
Supply-chain development		0.691	0.849	0.883
Functional product development		0.678	0.857	

Table 5. Continued

Measurement items	Eigen value	Factor loading	Communality	Cronbach's α
% of variance			13.891	
Startup fundamentals	2.697			
Sustainability		0.737	0.863	
Understanding resource characteristics		0.658	0.827	0.903
Collaborative business models		0.584	0.729	
Importance of preprocessing		0.560	0.762	
% of variance			13.484	
Total			82.829	
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			0.908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Approximate chi-square=1,788.225 *df*=190 *p*<0.001	

인적재량은 0.678~0.715였다. 창업기초 역량은 지속가능성, 자원 특성 이해, 협업모델 및 전처리 중요도의 4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요인적재량은 0.560~0.737이었다.

공통성은 0.699~0.931이었으며, Cronbach's α는 창업 브랜딩 역량 0.926, 가공기술 및 안전관리 역량 0.910, 제품개발 역량 0.922, 지역자원 이해 역량 0.883, 창업기초 역량 0.903이었다. 다섯 요인의 Cronbach's α가 모두 0.88 이상으로 나타나 각 요인에 포함된 문항의 내적 일관성이 높았다.

조사결과에서 창업 관련 역량은 브랜딩, 가공기술·안전관리, 제품개발, 지역자원 이해 및 창업기초의 다섯 영역으로 구분되었다. 이는 로컬 먹거리 기반 창업교육의 역량구조가 특정 기술 하나가 아니라 제품개발에서 사업화와 지역자원 연계에 이르는 여러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설명분산은 각 요인이 문항의 변량을 설명하는 정도이므로 교육 요구도의 평균이나 교육 우선순위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지역자원을 사업모델로 전환하는 역량과 지역 창업 생태계의 연계가 중요하다는 선행연구(Cho JH 등 2024; Kim GW & Kim CW 2025)를 고려하면, Table 5의 다섯 요인은 교육내용을 구성하는 핵심영역으로 활용할 수 있다.

6. 창업교육프로그램 운영방식 선호도

창업교육프로그램 운영방식의 선호도는 Table 6과 같다.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교육 형태는 이론과 실습 병행 교육이 51명(58.6%)으로 가장 많았고, 실습 중심 워크숍 38명(43.7%), 농가·가공센터 현장 중심 교육 32명(36.8%), 온라인·대면 병행 교육 18명(20.7%), 1:1 또는 그룹 멘토링 14명(16.1%) 순이었다.

희망 교육기간은 2~5주 단기 과정 37명(42.5%), 1~2일 단기 집중교육 24명(27.6%), 8~12주 정규 프로그램 21명(24.1%), 13~16주 정규 프로그램 5명(5.7%) 순이었다. 희망 시간대는 평일 오전 26명(29.9%), 주말 24명(27.6%), 평일 오후 19명(21.8%), 평일 저녁 18명(20.7%) 순이었다. 교육정보 획득 경로는 인터넷 34명(39.1%), 지인 23명(26.4%), 공공기관 안내 13명(14.9%), 홍보물·전단지 10명(11.5%), TV 7명(8.0%) 순이었다.

교육 형태에서는 이론과 실습 병행 교육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실습 중심 워크숍과 현장 중심 교육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조사대상자가 이론만으로 구성된 교육보다 실습과 현장을 포함한 운영방식을 선호했음을 보여준다. 성인학습자가 실제 문제와 적용 가능성을 중시한다는 Knowles MS(1980)의 관점과 경험·실행·성찰을 강조한 창업교육 연구(Kassean H 등 2015)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결과는 이론 설명과 실습 활동을 연계하는 운영방식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교육기간에서는 2~5주 단기 과정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나, 희망 시간대는 평일 오전 29.9%와 주말 27.6%를 포함하여 여러 시간대에 분산되었다. 또한 교육정보 획득 경로는 인터넷이 가장 많았다. 따라서 프로그램 운영 시에는 2~5주 단기 과정을 우선 고려하되, 시간대는 특정 시간으로 단정하기보다 대상자의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모집 안내에는 인터넷 채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Table 6. Preferences for the operation of the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

Preferred education operation		n (%)
Preferred type of education[1)]	Practice-oriented workshop (processing practice)	38 (43.7)
	Combined theory and practice	51 (58.6)
	Combined online and face-to-face education	18 (20.7)
	Field-based education at farms or processing centers	32 (36.8)
	One-to-one or group mentoring	14 (16.1)
Preferred duration	1~2-day intensive course	24 (27.6)
	2~5-week short course	37 (42.5)
	8~12-week regular program	21 (24.1)
	13~16-week regular program	5 (5.7)
Preferred class time	Weekday morning	26 (29.9)
	Weekday afternoon	19 (21.8)
	Weekday evening	18 (20.7)
	Weekend (Saturday)	24 (27.6)
Source of education information	Acquaintances	23 (26.4)
	TV	7 (8.0)
	Internet	34 (39.1)
	Public institution notices	13 (14.9)
	Promotional materials or flyers	10 (11.5)
Total		87 (100.0)

[1)] Multiple responses were allowed for the preferred type of education.

7. 창업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시사점

본 연구에서 확인된 다섯 가지 핵심역량과 교육 운영방식의 선호도는 로컬 먹거리 기반 창업교육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향후 교육과정은 로컬 먹거리와 지역자원 이해, 식품가공과 안전관리, 제품개발, 브랜딩과 마케팅 및 창업기초를 연계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다. 교육목표·교수방법·성과지표의 일치성을 강조한 Fayolle A & Gailly B(2008)와 Mwasalwiba ES(2010)의 논의를 고려하면, 각 핵심역량에 대응하는 학습목표와 평가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경험과 실행 중심 창업교육을 강조한 선행연구(Pittaway L & Cope J 2007; Neck HM & Greene PG 2011; Kassean H 등 2015; Sirelkhatim F & Gangi Y 2015)를 바탕으로 이론과 실습, 현장체험 및 전문가 멘토링을 연계하는 운영 방향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교육 요구도와 핵심역량의 요인구조를 조사한 연구로,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또는 교육 효과 검증을 포함하지 않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요구도 조사 결과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프로그램 운영 전후의 창업역량 변화, 시제품과 사업계획서의 완성도, 교육수료 및 실제 창업·사업화 성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는 창업교육 성과와 인적자본의 관련성을 제시한 Martin BC 등(2013)과 창업 의향에서 실제 행동으로의 전환을 검증해야 한다고 제안한 Nabi G 등(2017)의 논의와도 부합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 남부 지역의 25세 이상 식품 관련 전공 성인학습자 87명을 대상으로 로컬 먹거리 기반 창업교육에 대한 인식과 참여 의향, 창업교육 핵심역량 및 교육 운영방식의 선호도를 조사하여 창업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여성의 비율이 높았으며, 다수가 창업교육과 실제 창업 경험이 없었다. 로컬 먹거리는 주로 생활권 내 소매점과 농협 계열 유통매장에서 구매하였고, 신선채소류와 일일식품 및 제철과일류의 구매가 많았다. 구매는 주말과 평일 오후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로컬 먹거리 기반 창업교육에 대한 인식에서는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제품 개발교육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가장 높았으며, 식품가공 창업교육의 필요성과 창업 준비에 대한 실질적 도움도 높게 평가되었다. 반면 로컬 먹거리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한 이해는 상대적으로 낮아 교육 초기의 기초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성별과 거주지역에 따른 인식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일부 문항에서만 연령에 따른 차이가 확인되었다. 창업교육프로그램 참여 의향은 비교적 높았으며 성별, 연령 및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창업교육 요구 역량은 창업 브랜딩, 가공기술 및 안전관리, 제품개발, 지역자원 이해 및 창업기초 역량으로 구분되었고 내적 일관성도 양호하였다. 교육 운영방식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교육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실습 중심 워크숍과 현장 중심 교육에 대한 요구도 높았다. 교육기간은 단기 과정을 선호하였고 교육정보는 주로 인터넷을 통해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로컬 먹거리와 지역자원 이해, 식품가공과 안전관리, 제품개발, 브랜딩과 마케팅 및 창업기초를 포함한 창업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 지역과 표본 구성이 제한적이고, 교육 요구와 참여 의향을 자기보고식 설문조사에 근거하

므로 결과의 일반화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핵심역량의 요인구조는 더 큰 독립표본을 활용한 후속 검증이 필요하며, 향후 연구에서는 본 조사결과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육 효과와 실제 창업·사업화의 성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2026년 장안대학교 자체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음.

REFERENCES

Cho JH, Yoon SP, Song IB (2024) Analysis of local startup types for solving local problems in the digital age: Focusing on western Gyeongnam. Journal of Korea Society of Digital Industry and Information Management 20(4): 135-147.

Fayolle A, Gailly B (2008) From craft to science: Teaching models and learning processes in entrepreneurship education. J Eur Ind Train 32(7): 569-593.

Galli F, Brunori G (2013) Short Food Supply Chains as Drivers of Sustainable Development. Evidence Document. Laboratorio di Studi Rurali Sismondi, Pisa, Italy. pp 1-14.

Kassean H, Vanevenhoven J, Liguori E, Winkel DE (2015) Entrepreneurship education: A need for reflection, real-world experience and action. Int J Entrep Behav Res 21(5): 690-708.

Kim GW, Kim CW (2025) Analysis of research trends related to domestic local start-up.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20(2): 1-24.

Kim JN, Koo HG (2020) A study on the activation of local food certification system in Daejeon, Sejong, and Chungcheong: Focusing on comparing perceptions of consumers, local farmers, and store manager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l 29(3): 325-336.

Knowles MS (1980) The Modern Practice of Adult Education: From Pedagogy to Andragogy. Follett, Chicago, IL, USA. pp 49-54.

Kolb DA (1984) Experiential Learning: Experience as the Source of Learning and Development. Prentice Hall, Englewood Cliffs, NJ, USA. pp 20-22.

Lee CG, Seo YW (2018) Study on the revitalization plans of entrepreneurship in young adults through the analysis of local entrepreneurial ecosystem: Focusing on entrepreneurship program participants in Daejeon area.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13(6): 182-207.

Lee WH (2023) A study on the impact of local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the entrepreneurial motivation, entrepreneurial competencies, and entrepreneurial spirit of education participants.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28(11): 201-208.

Marsden T, Banks J, Bristow G (2000) Food supply chain approaches: Exploring their role in rural development. Sociol Ruralis 40(4): 424-438.

Martin BC, McNally JJ, Kay MJ (2013) Examining the formation of human capital in entrepreneurship: A meta-analysi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outcomes. J Bus Ventur 28(2): 211-224.

Mwasalwiba ES (2010) Entrepreneurship education: A review of its objectives, teaching methods, and impact indicators. Education Training 52(1): 20-47.

Nabi G, Liñán F, Fayolle A, Krueger N, Walmsley A (2017) The impa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higher education: A systematic review and research agenda. Acad Manag Learn Educ 16(2): 277-299.

Neck HM, Greene PG (2011) Entrepreneurship education: Known worlds and new frontiers. J Small Bus Manag 49(1): 55-70.

Pittaway L, Cope J (2007) Entrepreneurship education: A systematic review of the evidence. Int Small Bus J 25(5): 479-510.

Renting H, Marsden TK, Banks J (2003) Understanding alternative food networks: Exploring the role of short food supply chains in rural development. Environ Plan A 35(3): 393-411.

Sarasvathy SD (2001) Causation and effectuation: Toward a theoretical shift from economic inevitability to entrepreneurial contingency. Acad Manage Rev 26(2): 243-263.

Sirelkhatim F, Gangi Y (2015) Entrepreneurship education: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f curricula contents and teaching methods. Cogent Bus Manag 2(1): 1052034.

Date Received Oct. 6, 2026
Date Revised Oct. 8, 2026
Date Accepted Oct. 8, 2026